불교문화해설사 양성 '박차'

대불청 부산지구, 5월 15일 만해아카데미 개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작됐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5월 15일 부산불교실업인회 건물 3층 영광문화예술원에서 '만해아카데미 개원 및 불교문화해설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만해아카데미 첫 강좌는 '불교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서울과 부산, 제주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일정은 이론 7회, 현장 답사 5회로 진행된다. 강사는 류상영 초대원장과 박상언 부원장이 담당하며 기초과정 수료 후에는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증 3급이 주어진다. 이후 고급 심화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류상영 원장은 "만해 스님은 불교로 민족 각성과 조선 독립운동에 나섰다"며 "만해 스님의 뜻을 잇는 청년회가 새롭게 문을 연 만해아카데미가 포교 새바람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 회장은 "만해아카데미가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문화와 사회를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강좌, 특히 스마트폰의 불교적 활용법, 명상 등 불교 관련 사회접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검단선사 정신, 행복바라미와 같아"

고창 선운사,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축제 열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제가 5월 18일 조계종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렸다.<사진> 선운사 경내 곳곳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연꽃등 만들기, 소원지 쓰기, 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돼 나들이 나온 가족과 탐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개막식에서 선운사 부주지 대선 스님은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줘 생계를 해결하게 했던 검단선사의 선운사 창건 정신이 행복바라미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행복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사회가 통합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은 박종길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국 20개 교구신도회와 함께 나눔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마음을 통해 행복바라미의 참뜻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어서와 도솔천은 두 번째지?'를 진행했다. 군산 상주사 난타팀의 식전공연과 다도시연, 국악공연, 이창선 밴드와 가수 김용진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남구불교聯,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 5월 14일 시상식

부산남구불교연합회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19 이웃돕기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남구불교연합회는 매년 이웃돕기를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진행하며 자비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5월 14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희망2019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남구불교연합회 사무총장 호명 스님은 "매년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연합회에서 주관해 펼쳐왔지만 상을 받은 건 격려의 의미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합해 지역민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펼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몽골에 심은 '지구사랑 희망나무'

홍법사, 8000평 '홍법사 동산'에 3290그루 심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몽골 중부 지역 우브르항가이에 미래 환경을 위한 희망나무 3290그루가 심겼다. 10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교류를 이어 온 홍법사에 우브르항가이 지역이 8000여 평의 땅을 제공한 것으로, '홍법사 동산'을 기부 받아 진행된 미래 희망 사업이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5월 19일 몽골 우브르항가이 홍법사 동산에서 희망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 미래 10년 동안 푸른 숲이 있는 몽골 도시로 가꾸기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작됐다.

희망나무 3290그루는 한국과 홍법사 그리고 몽골 우브르항가이 지역민이 미래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원력이 담겼다. 3000그루의 포플러 나무와 70그루의 현지 야생 소나무는 홍법사가 구입했으며, 한국 산림청은 20그루의 포플러 나무와 200그루의 소나무를 기부했다.

심산 스님은 "물을 저장고에 저장해 뒀다가 실외 온도와 비슷해졌을 때 물을 주는 등 나무가 잘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푸른 숲 가꾸기가 몽골과 한국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법사는 10년 전부터 의료봉사와 교육, 문화 활동으로 몽골을 후원해 왔다. 의료 지원뿐 아니라 농아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교내를 청소를 하는 등 나눔 활동도 펼쳤다. 헌옷 보내기 사업일환으로 매년 몽골에 옷을 보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장학생을 선발해 교육 지원도 이어왔다. 홍법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몽골서 포터즈로 몽골과 인연을 맺어 몽골국가

희망나무 3290 그루 심어
푸른 숲 가꾸기 10년 계획
후손 위한 국제 협력 의미
"고비사막 확장 전에 심어야"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외국인 사상 처음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홍법사 동산 8000여 평은 지속적 봉사와 나눔으로 이뤄낸 결과다.

심산 스님은 "고비 사막이 확장될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동안 이어온 교육, 문화, 의료 활동으로 쌓은 신뢰가 만들어낸 의미 깊은 사업이다. 몽골이 푸르게 되는 건 우리 한반도도 함께 푸르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자리이타"라고 설명했다.


부산 홍법사가 몽골 중부 우브르항가이 지역 8000여 평의 땅에 나무 3290그루를 심었다.

강볼트 우브르항가이 도지사는 "홍법사의 활동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법사는 호국의 달을 맞아 6월 6일 '홍법바라밀재 및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먼저 '호국의 숨결을 느끼다' 편에서 제29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호국선열 추모대재)를 오전 10시 봉행한다. 개회식인 '호국의 숨결을 보다'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연주 및 의장대 사열 시범 등이 진행된다. 이날 내빈 및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호국영령을 기린다. 개회식은 낮 12시에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이어 전국 유치원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을 고취하는 제9회 호국의 숨결 대회(청소년 호국 문화예술 전국대회)도 펼쳐진다. '호국의 숨결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되며 그리기 부문, 글짓기 부문, 서예 부문으로 나눠 참가가능하다. 행사 당일 도화지, 원고지, 화선지는 주최 측에서 배부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hannarae.org)서 가능하며 우편과 현장 접수도 받는다. 온라인 접수 마감은 6월 2일이다.

英 앤드루왕자 천년고찰 봉정사 참배

"봉정사의 환대에 감사 왕실 가족 방문 추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20년 전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봉정사를 다시 찾았다.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AL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앤드루 왕자는 5월 14일 태극기와 영국국기 유니언 잭을 든 불자들과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 주지 도륜 스님의 환영 속에 봉정사에 도착했다.

20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아 방문했던 봉정사의 정취를 느끼고자 온 앤드루 왕자는 대웅전과 석조여래좌상, 극락전을 둘러보고 범종각에서 호성 스님과 함께 범종을 타종했다.

호성 스님과 앤드루 왕자는 영국과 영국 왕실의 번영, 한국과 안동 봉정사의 번영, 한국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봉정사에 방문한 앤드루 왕자가 평화를 기원하는 돌탑을 쌓는 모습.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극락전에 들어간 앤드루 왕자는 불교 의식에 쓰이는 목탁과 종의 용도를 묻고 800년을 온전히 견딘 극락전 기둥을 만지며 감탄했다.

앤드루 왕자는 극락전 앞 석탑 앞에 돌탑도 쌓았다. 도륜 스님은 이 땅의 평화와 자비광명을 기원하는 돌이라고 설명하자 앤드루 왕자는 "영광스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봉정사에서는 근일 스님이 '대영제국'을 첫 글자로 지은 4행시 '대한민국봉정사, 영국왕실요크공, 제불보살 가피력, 국운융성세계화' 족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앤드루 왕자는 '옛 모습을 간직한 산사에서 한국인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고 간다'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앤드루 왕자는 만세루를 나서며 봉정사에서의 추억을 여왕에게 전하겠다는 뜻과 왕실 가족의 방문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2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다녀간 하회마을,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봉정사에 이르는 32㎞의 길을 기존 '퀸스로드(Queen's Road)'에서 영국 왕실의 사람들이 잇따라 걸은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로얄웨이(The Royal Way)'로 새로 명명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大韓佛教 淨土禪宗 총무원 서방사

관정(寬淨)대사
12주기 다례재



관정스님은 1924년 7월 7일에 중국 복건성 포전현에서 태어나 7살 때 복건성 교충사(教忠寺)에 출가하여 17살 때 광동성의 남화사(南華寺)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강서성(江西城) 운거산에서 허운 화상으로부터 동운종 제48대 전법 제자로 부촉 받았다. 1980년 복건성 선유현 삼회사(三會寺)의 주지로 있을 때 12월 23일 선정에 들어 29일에 출정 6일반 동안 선유현에 진동이 일어났으며 귀의한 제자만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1967년 구선산 맥사암사 뒤 미륵 동굴에서 선정에 들어있을 시 관세음보살 인도로 극락세계 9품 연화의 경계를 참관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6년 5개월이 지난 1974년 음력 4월 8일이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널리 펴라고 부촉하신 선정쌍수(禪停雙修) 수행법인 정토선(淨土禪) 염불 수행법을 전해주시고 2007년 음력 6월 19일 0시에 열반에 드니 세수 84세, 법랍 68세다.

허운(虛雲)화상
사리탑 점안식



허운화상은 1840년 중국 복건성 천주부에서 태어나서 1858년(19세) 복주(福州)의 고산 용천사로 출가하여 다음 해 묘련 화상을 스승으로 구족계를 받았다. 44세 때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56세 때 양주 고민사(高旻寺)에서 12주간의 타칠(打七)기간중 8주 3일째, 뜨거운 물이 손에 튀고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순간 의심의 뿌리를 모두 끊었다. 종문(宗門)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외세의 침략과 공산정권의 억압 하에서도 승도(僧徒)를 수호하고 사찰과 불당의 파괴를 막고, 수십 개소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戒)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던 스님은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1959년 길상와(吉祥臥) 자세로 입적하였다.



경남 고성군 제9회
보리수 축제

행사내용

1부	오전 10:00 | 다례재 및 점안식
2부	오후 12:00 | 제9회 보리수 축제

행사안내

일시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장소	고성군 상리면 고봉1길 432-39 서방사
문의	055-673-3719 또는 010-8633-3719

고성 보리수 축제 11시 30분부터 중식 제공